

월간 실적보고

2016.05

Summary of 2016 May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6.2%** 성장
 - 패키지 **-5.3%** / 티켓 **28.5%** YOY 성장 (9.7만명 / 6.8만명)
2. 남태평양 **21%** , 미주 **11.1%** , 중국 **4.6%** , 동남아 **4.3%**
 - 남태평양 **3개월** 평균 **18.4%** 성장
 - 미주 **4개월** 평균 **22%** 성장
 - 중국, 동남아 **4%** 성장률

5월 Review

5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6.2%, 송출인원 16.6만명. 평균 합산 성장률이 35%를 넘었던 2015년 중 5월은 연중 최고 합산성장률(YoY 54.6%)의 기고 였습니다. 더구나 가장 큰 성장 지역이었던 일본의 지진 여파도 올 5월의 성장 저해요소 였습니다. 이로 인해 16년 5월 성장율은 6.1%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키지 성장률 -5.3%, 송출인원 9.7만. 5월은 전년 동월 49.3%의 패키지 성장률 기고와 일본 지진에 의한 패키지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아, 소폭 역성장 했습니다.

티켓은 성장률 28.5%, 송출인원 6.8만. 티켓은 각종 악재에도 큰 흔들림 없이 거의 2년 가까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6	97,865	68,625	166,490
2015	103,335	53,425	156,760
YOY	-5.3%	28.5%	6.2%

패키지 YoY : 3월 3.1% → 4월 4.2% → 5월 -5.3%

티켓 YoY : 3월 38.6% → 4월 42.1% → 5월 28.5%

총송객 YoY : 3월 14.2% → 4월 15.9% → 5월 6.2%

지역별 성장

5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남태평양 +21%** , **미주 +10.9%** , **중국 +4.6%** , **동남아 +4.3%**입니다.

남태평양 +21%, 3개월 평균 18.4% 성장했습니다. 전년 5월의 기고(27% YoY)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하며 중장거리 노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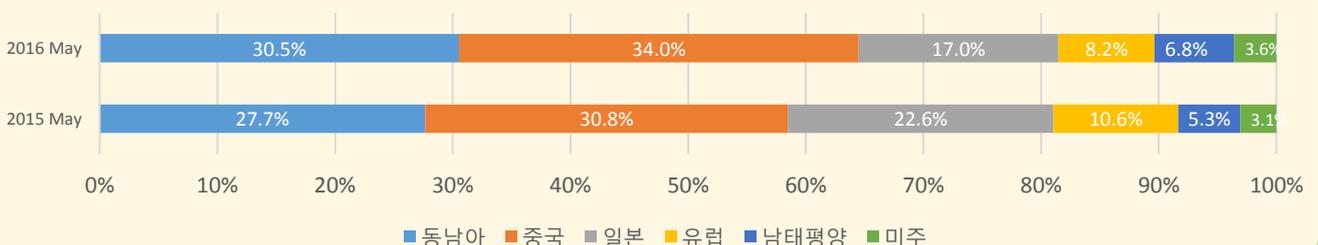
미주 +10.9%, 4개월 동알 꾸준히 2자리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꾸준히 성장을 하며 부진한 유럽의 장거리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는 각각 **+4.6%**, **+4.3%**. 소폭 플러스 성장을 하며, 단거리 지역 내 비중을 높였습니다.

일본은 **-28.9%**로 역성장 했습니다. 4월 중순 발생한 일본지진이 신규예약 유입둔화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전년 동월의 높은 성장률 (YoY 162%) 부담을 그대로 받으면서 역성장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은 **-27.2%**로 역성장했지만 성수기인 3분기 부터는 예약 흐름으로 볼때 플러스 성장세가 나올것으로 예상 됩니다.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6년 6월	16년 7월	16년 8월
증감률	11.5%	20.2%	14.9%

* 2016.5.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6월의 예약률은 성장의 주축이었던 일본과 유럽의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 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두자리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리 위주 당월 예약으로 반등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도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예약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6월 감소폭의 절반수준으로 양호합니다.

8월은 작년에 없던 광복절 연휴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과 **8월**의 예약률은 작년 MERS 악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6월 중순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다가, 일본이 지진여파에서 회복되는 7월 중순 이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